

노무현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먼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와 제 주변사람들의 대선자금 내지 비리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관해서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다.

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한 전체적인 대선자금 문제를 가지고 국민여러분들께서 무적 마음 상하시고 또 피곤하시리라고 믿는다. 여론을 들어보면 모든 것은 다 밝히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피곤하다 빨리 좀 마무리를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 정치가 좀 새로워질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도 이 과정을 아마 기꺼이 참아 내리시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제 정치가 또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는 뚜렷한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더욱 분노하고 더욱 짜증스러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다.

그래서 저와 정치권에게 함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다. 우리 이제 허물이 드러나고 지난 일의 잘못은 그것을 다시없었던 상태로 돌릴 수 없다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반성의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자 이렇게 제안 드린다. 지금 우리 모두는 자기 것은 숨기고 남의 것은 의혹을 스스로 부풀려 그를 통해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는 모습은 역시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자세로 철저히 수사에 협력하고 모든 사실을 다 밝힌 다음에 어떻게 우리 정치를 개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곧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모든 노력을 한 다음에 겸허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때론 용서받을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총선을 치르지 않지만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모든 사실이 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다음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신임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드리겠다. 감사하다.

■ 질의응답

▲ 한나라당 불법선거자금의 10분 1이 넘으면 정계은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제 쪽의 선거자금, 불법선거자금 말하자면 우리 선거대책위원회나 저의 측근 참모들을 말하는 것이다. 제 쪽의 불법선거자금이 한나라당 쪽의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제가 정계은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뜻이 크게 왜곡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슨 폭탄선언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승부수를 던진다는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아시듯이 지난 일요일 오전 10시에 4당 대표와의 회동이 있었다. 거기에서 이라크 파병문제를 논의하고 난 다음에 역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께서 제게 의혹을 제기했다. 소위 대통령 쪽의 불법자금은 정말 그렇게 적으나, 이런 요지의 것이고 검찰수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상식적으로 우리 절반이라도 받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제기를 여러 차례 하셨고 그것은 왜 밝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한 그와 같은 방향의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무척 억울하다 생각했다. 이것은 반드시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끊임없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그와 같은 의혹제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당한 일이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날 다시 그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길래 제가 단언코 얘기했다. 그만 좀, 그만 좀 무책임한 그런 의혹 부풀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대로 조용히 법 절차에 따라서 조사 받고 우리도 그야말로 조용히 수사 받으면 된다, 괜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실제로 저는 10분의 1 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분의 1 넘으면 정계은퇴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다. 그냥 말하면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 직을 걸고 맹세를 해야 믿어줄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예, 그 부분은 제가 결코 임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 없이 그렇게 헛소리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책임은 지려고 한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대한 강한 쟁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이라는 제 사실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아주셔야지 그 말이 적절하냐 안 하냐라는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 문제의 본질이 호도 된다,

말이 적절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죽 근거 없이 공격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겠나. 근거 없는 의혹제기 그것을 부풀리는 사회적 분위기,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에게서는 치명적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과가 다 밝혀지고 나면 전에 말해 왔던 대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방법을 찾겠다. 이것은 저의 양심의 부담에서 그리고 양심의 부담에 이어서 또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는 전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처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재신임을 제가 꼭 묻도록 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분의 1의 문제는 그것은 사실이 밝혀지면 재신임 절차 없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 이회창 전 총재의 검찰조사에 대한 생각과 대통령의 검찰조사에 대한 입장

이회창 후보의 검찰출두 사실을 TV로 지켜보면서 참으로 착잡했다. 제가 선거하는 동안에도 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제 가까운 사람들이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할 적이면 제가 항상 반론을 하곤 했다. 이회창 후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각별히 각별히 잘 수련된 사람이다. 옛날 이회창 후보가 정당 입당을 하기 전에 제가 아는 법조인에게 정말 이회창 후보가 법조계 안에서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답을 받은 적이 있다.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가장은 아니지만 아주 자질이 우수하고 자세가 바른 법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정치 구장이라는 것, 정치 운동장이라는 데가 잔디 구장이 아니고 진 빨밭 구장이라서 여기 들어오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당신인들 난들 그렇게 큰소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하곤 했다.

저는 스포츠에 비기면 대선 구장은 빨밭 구장이다. 그것이 과거에 그랬다.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전에는 규칙도 거의 없고 마구 울퉁불퉁한 자갈밭 같은 데서 게임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좀 옛날에는 기울기도 한 구장이다.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비탈구장에서 한쪽은 위에서 내려차고 한쪽은 위로 올려 차는 그런 축구장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아직도 잘 다듬어진 잔디구장은 아니다.

그래서 책임이 더 크고 적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저와 대통령 자리를 놓고 선거로써 함께 겨루었던 사람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그래도 덜 오염됐을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믿었던 분이 그렇게 검찰로 출두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어찌겠나. 우리에게 미래가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도 그 분을 용서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언덕을 넘어서 이 고통의 언덕을 넘어서 새롭게 가야 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기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 스스로도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나. 50보 100보 아니겠나. 저는 그분의 출두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거기에 겹쳐져서 자꾸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착잡하고 고통스럽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뭔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모든 문제를 공방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다. 이회창 후보가 한 수 받아줬으니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치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계속 밝혀 왔던 대로 성역 없이 수사를 받겠다. 측근비리에 관해서는 오늘 중으로 특검 임명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대선자금에 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특검 정해 주시면 거기에 정말 이의 없이 특검받겠다. 그래서 저는 두 번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에 관해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그냥 제가 자진해서 검찰로 나가고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 검찰에서 수사상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와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가 특별히 뭘 밝힌 것이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밝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러쿵저러쿵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또 다른 공격을 불러오게 돼 있다. 제가 아주 추상적으로 10분의 1 정도를 제기했는데 이것 또한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난이 있는 마당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이 대통령의 자리의 특수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밝혀야 될 만큼 국민들 앞에 솔직히 다 밝히고 그리고 신임

을 구하겠다.

▲대선자금 문제의 국민적 합의에 의한 면책에 대해

이미 늦어버린 것 같다. 7월달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모두 선거자금을 공개하고 검찰의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자 하는 것이었다.

그때 만일에 우리가 정치자금 공개라는 것을 실제 장부를 제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좌를 함께 공개하고 검찰이 수사를 만일에 하게 됐다면 지금 같은 불법자금이 다 드러났을 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과정에서 거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돈이 들어온 쪽에서 입구에서 체크를 하는 것도 수사의 방법이지만 출구도 있다. 각 지구당으로 나누어준 돈 계좌를 통해서 또는 현금을 직접 이렇게 나누어준 돈은 원채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수사하면 다 밝혀 질 수 있다. 그리고 회계처리도 보면 그 안에 소위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당의 운영자금에 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정당 또는 후보가 써온 자금의 구조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구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마련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때 제 제안마저도 조금은 비현실적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 하면 불법자금이 숨겨져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 단서가 어딘가 포함돼 있을 그 정당장부를 감히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나. 그런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다만 그 당시 민주당은 장부를 내놨다. 민주당이 아니고 저, 우리 선대위는 장부를 제출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정치자금의 고해성사라는 것이 한번도 없었던 것을

보면 준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역시 어렵고 그런 것 아닌가 싶다.

지난 번에 서독의 콜 수상이 정치자금 문제가 나왔을 때 끝내 출처를 묵비한 것을 보면 정치인이 자기 도와준 사람에게 또 이중의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닌가 싶다. 고해성사는 현실성이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 어쨌든 수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입구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벌이 전제되지만 제가 여기서 출구를 조사하고 어찌고 말하기도 두렵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자금은 구조적으로 전모를 파악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입구와 출구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검찰이 얼마만큼 수사가 공정한지도 나는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출구가 있으리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딜 문제는 딜한다 이러는데 저는 딜 아는 바 없고 그냥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딜이 있는지 지금 알 수 없고 어쨌든 저도 매우 힘들게 가혹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어쨌든 면책 문제는 지금 논의하기가 좀 지금 제가 무슨 말하기에 이미 늦어버린 것 같고 아마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국민들의 여론을 지켜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총선이 마주 있어서 서로 대화와 협력보다는 아마 대결적 분위기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총선 이후에라도 이번에 수사만 제대로 되고 정리가 제대로 되면 총선 이후에라도 이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합 조치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

▲대통령측의 대선자금 문제와 측근의 구속 수사에 대해

미안할 따름이다. 정말 정치를 하면서 후보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리라는 기대도 높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이런 의혹으로 시달리지 않는 대통령이 한번 되고 싶었다. 그런데 철저히 하느라고 노력했지만 철저히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부끄러운 모

습이 돼 있으니 미안할 뿐이다. 심정으로야 모든 것을 제 아는 대로 또 모르는 것은 다 알아서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 다 드리고 싶다.

지난 번 맨 처음 안희정씨가 나라종금 문제로 수사를 받을 때 그때는 국민들에 대한 고백이라는 측면보다 안희정씨가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을 밝히려고 했다. 했는데 많은 참모들이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아울러서 그것이 수사에 영향을 주는 말로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가슴아팠지만 말을 못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문제에 관해서 속 시원히 말하면 말하고 하면 당장 그 이후부터 마음이라도 좀 편할 것 같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나는 다 안다고 말했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제가 거짓말한 꼴밖에 안 되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얘기가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수사가 끝나고 제 양심껏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

▲개각에 관한 구상과 열린우리당 입당의향에 대해

개각은 연말에 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쇄신 차원의 개각은 아니다. 저는 쇄신개각이라는 이런 이름을 자꾸 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대개 30개월 이상씩 장관으로 재직하고 평균이 그렇고 일본도 20수개월씩 장관으로 재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 대개 20개월 정도, 전두환 대통령 때도 조금... 정확하게 모르겠고, 노태우 대통령 때 13개월로 줄어들고 그 뒤 10개월, 11개월 이것이 장관의 평균수명인데 이렇게 해서 국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짧아졌느냐 하면 정국이 어려울 때마다 정국들과용으로 개각을 했기 때문에 장관 임기가 이렇게 짧아진 것이다. 그 다음에 검증이 없던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임명되자마자 탈락한 사람들이 아마도 평균 재직기간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관은 오래 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원칙을 그냥 주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또 인사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중간 인사, 개각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는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내년도에 새로 세운 정부와 각 부처의 목표에 따라서 맞게 그런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의 인사, 어느 부분에 역점을 뒀서 이 자리를 꼭 바꾸어서 새로 목표를 추진해야겠다 하는 곳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대통령이 신임하더라도 국민들이 신임하기 어렵다고 하는 장관이 있다. 이 부분은 부득이 여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아마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신다. 내시니까 그렇게 한다. 어쨌든 큰 폭의 인사는 없고 가급적 문책인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개 스스로 사임하시고 정치를 하실 분은 스스로 지금 판단해서 빨리 정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 제가 강권한 일은 없고 그렇게 정치를 하실 분은 빨리 정리하고 그래서 정치수요에 의해서 스스로 털고 일어서시는 분, 그 다음에 스스로 그동안에 업무처리과정에서 좀 신뢰를 잃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그런 분 일부 개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입당문제는 제가 피하는 이유가 지금은 사실 두 가지를 해야 될 때이다. 하나는 허물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들 앞에 겸손히 조사 받는 모습, 그렇게 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와중에도 할 일은 또박또박 챙기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시도 국정을 놓치지 않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챙기는 자세, 그런 자세로 일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제 거취를 가지고 무슨 총선전략에 임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언제든 정당에 입당해서 당당히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은 법적으로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 해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 대통령직에 대한 생각과 관(觀)은

우리 최 기자 질문하신 대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또 최종적인 책임자이다. 국가를 보위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살림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또 살림이 앞으로 넉넉하도록 그렇게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때때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를 관리해야 하고 우리 한국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이며 따라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과거처럼 어떤 큰 권력을 휘두르고 또 외형상 권위를 가진다고 이와 같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성에 대해서 성실성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저 위에 있는 탄 나라에서 온,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과 서로 살갓을 맞대고 호흡을 함께 하는 평범한 시민의 정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직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인간적 정서에 있어서 우리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낮은 대통령, 선거 후보 때도 낮은 대통령, 겸손한 대통령 이렇게 했다. 했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쳤나 보다. 그래서 대통령 못해 먹겠다 나는 이것을 그 자리에 오신 분에게 분위기를 편하게 하고 그냥 애교로 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좀 지나쳤나 보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런 말 잘 쓰지 않는다. 그러나 그 뒤에 재신임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가벼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르다. 대통령은 아울러서 책임져야 한다. 책임질 줄 아는 대통령, 언제든지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권력에 집착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권력에 연연하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만 지키겠다고 만일 한다면 우리가 따르고 거기에 권한의 남용이 따르고 국가기관의 기능이 왜곡될 수 있지 않겠나.

많은 분들이 마음 비우라고 얘기한다. 마음 비우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일하고자 한다. 이번에 정계은퇴 얘기는 강조법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처럼, 이처럼 제 잘못에 기인한다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대통령, 오래 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신임이 정리돼야 한다.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받고 일할 수 있는 신임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결과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는 날, 마지막 날까지 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 일이 표류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결단코 얘기하건대 제가 지금 할 일은 표류하지 않는다. 다 챙기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마무리 발언

지금 모두가 힘들다. 모두가 힘든 일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되도록 모두 협력해서 빨리 이 상황을 매듭짓고 그리고 개혁할 것, 개선할 것 개선하고 책임질 것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 아주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후로는 지금보다 우리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진보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저는 이것을 그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진통의 과정, 앞으로 더 큰 면역력을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면역력을 갖기 위한 홍역을 치르는 과정으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희망적으로 오늘의 상황을 좀 해석하고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다. 사실 그렇다. 제가 무슨 작전으로 공작으로 수사를 제가 지시해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 판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저는 지난 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상당히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보다 우리가 대통령선거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다, 우리는 선거혁명을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불법자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때 평가했던 그 평가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후보와 함께 한 정치인,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우리의 소중한 신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부인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소중한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87년에 비해서 92년, 92년에 비해서 97년, 97년에 비해서 2002년의 선거, 날로 달라졌다. 문화가 달라졌고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진보하고 있다. 오늘 이 국력이 이 다음, 다음 우리 한국정치에 보다 나은 한 걸음 향상과 진보를 향한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가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모아서 제도를 개선하고 정당문화도 함께 개선해나가는 이런 노력을 정치인들은 스스로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노력의 방향이 떠넘기기, 숨기기 그렇게 모면하기가 아니라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다.

저 스스로 추호도 모면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자꾸만 환경이 그렇다. 끊임없이 의혹제기를 통해서 공격 방어가 진행되는 동안 자연히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노력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는 싸움으로만 비치게 돼 있다. 반성하지 않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방향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우리 취재하고 보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감사하다.